

# LPG차량 잇단 화재사고 '달리는 화약고'

## 중고차 시장 인기 불구 가스누출 대책 미흡...안전점검 강화해야

차량 연료비가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스(LPG·CNG) 차량에 대한 이용과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가스 누출 등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만1159대이던 LPG 차량은 2010년 9만30대, 지난해 말 9만3990대 등으로 크게 늘었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장애인 5년 이상 소유한 LPG 차량을 일반인이 구입, 운행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바뀐데다,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LPG 차량 운전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LPG 차량에 대한 안전 점검은 미흡한 수준이다. 정기 점검 외에 광주시의 경우 수시로 LPG 차량의 가스 누출 점검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오래된 차량일수록 가스 누출률이 높을 수 있지만 일선 구청에서는 "LPG 충전소에서 안전점검을 한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그나마 LPG 충전소에서 이뤄지는 점검도 충분하지 않다. 지난 2008년 소비자가 원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충실하게 따르는 충전소나 운전자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LPG차량에서 가스가 새

는 줄도 모르고 도로를 달리다 화재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2시30분께 목포시 호남동 목포역 앞에서 LPG 승용차에서 불이 나 운전하던 이모(39)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차 안에서 가스 배설을 맡았고 담뱃불을 붙이는 순간, 갑자기

불이 났다는 이씨 진술 등을 토대로 가스 누출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장흥군 대덕읍 구평마을 앞에서도 시동을 켜 놓았던 차량 내부 LPG통에서 가스가 새는 바람에 불이 나 경찰이 사고 경위를 파악중이다.

압축천연가스인 CNG(Compressed Natural Gas) 차량도 비슷하

다. 휘발유·경유 차량이라도 교통안전공단 안전 검사만 받으면 쉽게 개조가 가능한데다, 친환경적이고 연비가 좋다는 점 때문에 사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연비도 2000cc차량을 기준으로 1㎡당 10~14km를 달릴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으로, 휘발유 절반 가격으로 운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로 인해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08년 19대에 불과했던 CNG 승용차가 지난해 말 279대로 10배 이상 늘어났

다. 하지만 충전소에서 안전 검사를 받기는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광주의 경우 고작 6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시내버스 전용으로 운영하는 충전소 4곳을 제외하면 2곳이 전부다.

이 때문에 광주지역 CNG 차량 운전자들은 거주지에서 광산·상무 충전소까지 이동해 충전하는 상황이 매일 반복되는 형편이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독거노인 위로 재롱잔치

4일 오전 광주시 북구 중흥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설맞이 독거어르신 떡국 대접행사에서 중흥 어린이집 학생들이 귀엽게 율동하며 재롱을 피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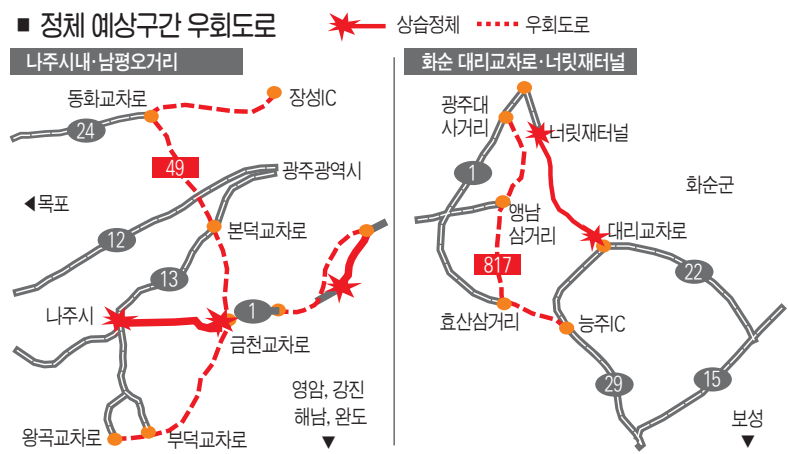
## 광주~화순 설 귀성객 앵남삼거리로 우회하세요

### 상승 정체 구간 교통대책

"광주방면에서 화순 가시려면 앵남삼거리 방면으로 돌아가세요."

익산국도관리청이 설 연휴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전남지역 상승정체 구간 운행 시 우회도로 이용을 당부했다. 정체가 심한 화순~보성 구간 중 화순 대리교차로 인근과 너릿재 터널 구간은 '광주대~앵남삼거리~능주 나들목' 방안을 우회도로로 이용된다.

국도 1호선 남평 오거리와 나주시 내 구간은 최근 개통한 남평 우회도로나 왕곡~금천 구간을 이용하면 된다.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영암과 해남, 완도 방면으로 가는 귀성객은 장성 나들목에서 빠져나온 뒤 국도 24호선과 5일 완전히 개통하는 국지도 49호선을 이용해 혁신도시(왕곡~금



천)를 통과하면 광주 도심 구간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오갈 수 있다.

익산국도청은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 동안 '설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도로교통정보

센터(icmoits.mltm.go.kr)와 전화(063-837-1184)를 통해 국도 및 인근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도로불편이용신고 전화(080-0482-000).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설 연휴 광주·전남 강추위

### 7일~12일 또 한파...하순계 겨울추위 물러갈듯

올해 설 연휴 기간 광주·전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 강추위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7일부터 시작되는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지면서 기온이 평년(최저기온 영하 7도~0도, 최고기온 영상 5도~9도)보다 낮아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파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12일째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겨울 겨울 추위는 이달 하순계는 낮은 것으로 예측됐다. 또 하순에는 눈이나 비가 평년보다 많이 내 전망이다.

광주시상청이 4일 발표한 '1개월 전망'에서 2월 하순에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보다 상대적으로 포근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다고 내다봤다.

남쪽으로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많은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다.

이달 중순은 고기압과 저기압이 번갈아 영향을 주면서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3월 초순에도 계속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나, 일시적으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꽃샘추위로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9분 해질 18시 05분 달뜨기 02시 27분 달지기 12시 52분

도시	최저	최고
광주	0/4	0/4
목포	0/4	0/4
여수	-1/4	-1/4
완도	-1/6	-1/6
구례	-3/5	-3/5
강진	-1/5	-1/5
해남	-1/5	-1/5
장흥	-1/5	-1/5
순천	-3/5	-3/5
영광	-3/3	-3/3
진도	0/6	0/6
전주	-2/3	-2/3
군산	-3/3	-3/3
남원	-4/3	-4/3
홍산도	2/5	2/5

바다	중랑	파고	해상상태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관심	낮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관심	낮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관심	낮음	높음

바다	중랑	파고	해상상태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관심	낮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관심	낮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관심	낮음	높음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6(수)	7(목)	8(금)	9(토)	10(일)	11(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1/4	-4/-1	-8/0	-6/1	-4/3	-3/4

## 검찰총장 인선 어떻게 되나

### 추천위 7일 첫 회의...14~15기서 압축될 듯

지난해 말 사퇴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첫 회의가 오는 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4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조계 안팎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7~8일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은 설 연휴 전날이어서 7일 개최 쪽으로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천거와 검증 결과 등을 종합하면 실무작업을 진행한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14, 15기 출신의 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을 중심으로 추천위에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14기에서는 검찰총장 권한 대행인 김진태(61·경남) 대검 차장과 김학의(57·서울) 대전고검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15기에서는 소병철(55·전남) 대구고검장, 길태기(56·서울) 법무 차관 등이 후보군에 근접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 고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정책기획단장·기조실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 수사·기획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경험했으며, 길 차관은 엄정하면서도 자상한 리더십의 '덕장 스타일'이다.

서울고검장 출신인 안창호(56·14기·충남) 헌법재판관도 인사검증에 동의했지만, 헌법재판관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 추천에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상자가 3~4명 뿐인데다 추천위의 특성상 여러 번 회의를 열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두 차례 회의 후 곧장 추천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연합뉴스

http://www.hankooktea.co.kr

#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각종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업선된 名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제품문의 · 광주 차생원 :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 062)221-1037 · 광주 현대점 : 062)510-7040 · 목포 차생원 : 061)281-1002 · 서울 차생원 : 02)730-2983 · 부산 차생원 : 051)256-7007-8